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78)

越境納土

월 경 납 토

경계를 넘어서 토지를 헌납하였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국회의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야당대표가 ‘취만 잘 잡으면 그만이지 고양이 색깔이야 무슨 상관이나?’라는 말을 하면서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정책이라면 비록 여당의 정책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사실 이 말은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고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3백만 명의 아사자(餓死者)가 나온 뒤에 덩샤오핑(鄧小平)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내세운 유명한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을 원용(援用)한 말인 것 같다.

덩샤오핑은 공산주의가 가져 온 인민의 아사(餓死)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용주의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이 말을 했다. 흰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인지, 검은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라는 말이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공산주의가 좋으나, 자본주의가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훌륭한 좋다는 말이다.

덩샤오핑은 이러한 철학의 전환으로 죽의 장막으로 가려 있던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하여 적대시하던 서방세계와 소통하면서 중국의 경제를 오늘날처럼 끌어 올리는 물꼬를 뒀고 50~60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견주며 경쟁할 정도로 국력을 끌어 올렸으니 그의 흑묘백묘론은 현대 중국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였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라는 것도 전국시대에 순자(荀子)가 말한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순자(荀子)의 애공편(哀公篇)에서 권력자인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배를 띄우는 물이라고 한 것이다. 물이 잔잔할 때는 물위에 떠 있는 배는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일단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면 배는 뒤엎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배를 탄 사람은 비록 권력 있고 지체 높은 군주라고 하여도 물이 파도치지 않고 잔잔하기를 바라거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군주민수라는 말은 상징적인 말이지만 지배받는 백성이 편안하게 살게 하고 화내지 않게 해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그러니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공산혁명과 문화대혁명이라는 소용돌이를 겪고 나서야 겨우 순자의 군주민수라는 2천 몇 백 년 전의 진리를 깨달은 셈이니 늦기는 몹시 늦은 셈

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던가? 덩샤오핑의 뒤늦을 깨달음은 그 후에 중국에서는 다시는 3백만 명의 아사자가 나오는 일이 없었으니 지도자로서 올바르게 생각을 전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실 이 순자의 말처럼 물인 백성이 화가 나서 철옹성 같은 왕조를 무너트린 예는 항상 왕조말에 나타나고 하였다. 이런 왕조말적 현상을 역사에서는 때로는 반란세력이라고 쓰고 있기는 하지만 농민봉기는 왕조를 무너트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진(秦)도 결국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의 반란에서 시작되었고, 2백 년 동안 왕조를 지탱하던 전한(前漢)도 왕망의 찬탈과 독제가 녹림군(綠林軍)을 등장시켰다. 후한 말 환관의 말호와 황건적(黃巾賊)의 등장은 그 후로 중원 대륙을 400, 500년 동안 분열의 시대를 만들었다. 근 300년을 지탱하던 당(唐) 왕조도 황소(黃巢)의 난으로 기울어졌고, 북방의 거란, 여진, 몽고의 남하와 중원지역이 북방민족의 무대가 된 것은 모두 정통왕조라고 자부하는 한족(漢族) 왕조가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왕조가 정통이나 아니냐를 따지지 않는다. 그저 편안히 살게 하는 지도자가 좋고, 그런 사람의 주의주장(主義主張)이 좋을 뿐이었다. 그러니 역사에서 흔히 백성을 잘 살게 하겠다는 이론으로 백성을 유혹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알맹이가 없으면 곧 뒤 돌아 서는 것이 백성이다.

그 극단적인 예를 속자치통감에서 보게 된다. 시기는 남송 말, 300년을 지탱해 온 북송과 남송의 운명이 몽고족 원(元)의 남하로 끝날 무렵의 일이다. 몽고족은 월등한 무력으로 대몽고제국을 건설하였고, 쿠빌라이의 원은 중원지역을 맡아서 남송을 압박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한족(漢族)은 이민족에 대해 저항(抵抗)해야 하는 것이 아니가? 말도 다르고 풍속도 다른 몽고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후대에 한족(漢族) 학자들은 몽고족의 지배를 ‘구유십개(九儒十丐)’라는 말로 몽고인들이 지식인 유학자를 멸시하였다고 술회하였다. 즉 백성을 10등급으로 분류한다면 맨 마지막 등급인 10등급이 걸인(乞人)이라면 전에 대우받던 유자(儒者)는 9등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몽고족의 원(元)은 실용주의였다. 유자를 특별히 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로 보아 도가(道家), 불가(佛家)와 비슷한 처우와 대우를 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의 소망하는 것을 잘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용노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선의 정치가 성공한 경우가 원 세조 쿠빌라이가 염희헌(廉希憲)을 형남(荊南)지방의 염방사(廉訪使)로 임명하였던 예에서 나타났다.

위구르 출신의 염희헌이 중국 남부지역인 형남(荊南)지역의 책임자로 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그는 새로 원의 영토가 된 형남지역을 통치하면서 지배자로서 횡포하는 대신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며 불안하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였다. ‘교육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대대적으로 학교를 일으켰다. 그 위에 교관(敎官)을 선발하고 책을 구해다가 경적(經籍)을 비치하였다. 작취 대신에 백성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한인(漢人)이 꼭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이웃으로부터 퍼졌다. 형남(荊南)지역 밖에 있는 사주(思州)와 파주(播州)에 근거를 둔 전씨(田氏)와 양씨(楊氏) 두 집안이 항복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왔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 서남지역 산 속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집단인 서남계동(西南溪峒) 사람들도 경계지역을 넘어서 형남지역으로 와서 항복할 터이니 항복을 받아달라고 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쿠빌라이는 ‘먼저변 조정에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토를 얻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염희헌은 수천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경계지역을 넘어 서까지 와서 땅을 헌납하였으니 그 정치와 교화(敎化)의 상황을 불만한다.’고 하였다.

각설하고 야당대표의 ‘쥐 잘 잡는 고양이’론이 덩샤오핑처럼 정말로 생각을 대전환하여 백성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는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아무리 정적인 대통령이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권력 싸움이고 그들만의 게임으로 본다. 주목하는 것은 구속되었던 사람이 복귀하던, 아니면 정권교체가 되던 쥐를 잘 잡는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백성들은 계속하여 검증할 것이다.

고사성어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권선징악(勸善懲惡)

권세 권. 착할 선. 징계할 징. 악할 악.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흥부전, 흥길동전, 장화홍련전, 신데렐라 등의 고전소설을 권선징악 소설이라 한다.

권토중래(捲土重來)

말 권. 흙 토. 거듭 중. 올 래. 흙먼지를 일으켜 다시 쳐들어온다는 뜻. 한번 실패한 자가 다시 도전함을 이룸. 항우와 유방의 패권전쟁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로 사면초가(四面楚歌), 역발산 기개세(力拔山 氣蓋世), 권토중래 등이 있다. 권토중래는 항우가 최후의 결전에서 패하여 자결했고 유방은 한나라 황제에 올랐다.

전투에서 패했을 때 항우의 부하들은 “강동으로 돌아가 다시 힘을 모아 재기하자”고 권유했지만 항우는 “8년 전 8천 명의 자제와 함께 떠난 내가 무슨 면목으로 혼자 강을 건너 강동으로 돌아가겠느냐”며 31년의 짧은 생을 스스로 마쳤다. 훗날 당나라 말기의 대표적 시인 두목(杜牧)은 항우의 기백을 가리며 “승패란 병가에서 기약할 수 없는 일이니 부끄러움을 안고 참을 줄 아는 것이 사나이라네. 강동의 젊은이 중에는 준재가 많으니 흙먼지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왔다면 어찌 되었을까(捲土重來未可知)”라고 시를 지어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 여기서 유래한 권토중래는 어떤 일에 실패하였으나 힘을 축적하여 다시 그 일에 착수하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안동권씨 서울지역 종친회 사육신 묘 참배 후기

서울지역종친회(회장 권영복)는 계유정난(단종사화) 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육신 묘(서울시 유령문화재 제 8호)를 방문해 절의를 지키다 순절한 충신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참배했다. 사육신공원 입구 쪽 담벼락에는 함석헌 선생의 시 한 편이 적혀 있다.

“수양대군이 불러온 피바람 / 그럴지만 세조의 피바람 뒤에 / 우리는 의(義)를 알았다. / 사육신이 죽지 않았던들 / 우리가 ‘의’를 알았겠는가 / 이것도 고난의 뜻이지 않을까 / ‘고난’ 뒤에는 배울 것이 있다.” (함석헌 선생 〈씨알의 소리〉중에서)

일행은 참배 후 노들家 식당에서 돼지주물럭 버섯전골에 약주를 곁들여 화기에애하게 식사를 마치고 옆에 있는 노들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햇살이 따뜻한 양지바른 곳에 옷판을 벌리고 좌우군으로 편을 갈라 즐겁고 재미나게 옷놀이를 했다. 그 결과 우군이 2:1로 역전승했다. 우군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옷놀이를 마치고 좌우군이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 수



산시장 화 센터로 가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다섯 가지 화와 약주로 회포를 풀었다. 대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주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노량진에 위치한 사육신공원은 사육신 묘와 그 일대를 성역화하여 공원으로 가꾸었다. 사육신묘는 수양대군과 한명회 등이 단종을 강제로 내쫓고 왕위를 빼앗은 세조에 저항하다 순절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 등 여섯 충신의 묘역이다. 그러나 김문기 묘까지 추가되어 현재는 일곱 기가 자리하고 있다. 사당인 의절사



성삼문의 묘. 묘비에는 ‘성씨지묘(成氏之墓)’라고 표기되어 있다.

입구에 있는 불이문(不二門)은 단종 외의 임금은 섬기지 않겠다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의미를 담고 있다.

권영복 서울지역종친회장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총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 033237-04-0069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

▶ 농 협 : 301-0235-6546-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

안동권씨 대총회

2025年 2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1.23. ~ 2.23. 총 납부자 22명 총 70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기형(서울마포) 30,000	권순채(서울송파) 30,000	권주연(안동) 30,000	권혁기(서울양천) 30,000
권기호(울산 야음동) 30,000	권오현(대구 달서구) 30,000	권태원(김포) 30,000	권혁원(수원) 30,000
권덕웅(서울양천) 30,000	권용일(서울구로) 30,000	권태원(예천) 30,000	권호민(고양) 30,000
권병택(음성) 50,000	권윤기(대구) 50,000	권태평(전주) 30,000	권훈수(서울양천) 30,000
권성유(제천) 30,000	권이준(서울광진) 30,000	권택락(안동) 30,000	
권송웅(대전) 30,000	권종삼(서울강서) 30,000	권혁근(경주 이소리) 3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